제 774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6년 11 월 12 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곤고한 자의 형통한 복

(시편 34:1-22)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체험은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바로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가지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가운데는 다윗 왕의 생애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시가 14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본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목은 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식사를 하는 다윗에게 두 번이나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고 사울은 계속 추격전을 펼칩니다. 가드는 다윗이 수 년 전에 전장에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울을 피해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한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하는 행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가드로 가기 전에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도망 온 다윗을 죽이지 않고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내쫓았습니다.

도망을 치는 다윗은 몹시 슬펐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잔꾀로 위기를 피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처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편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애소하고 있습니다. 삼상 22장에서 다윗은 가드 지방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아마도 그 곳에서 썼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라는 것과 자기 경험을 통해 인생들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펄젼 목사님은 시편 34편이 처음 10절은 찬양이고 나머지 12절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삼상 21:10-15에 의하면 다윗이 미친 척했을 때 당시 가드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드 왕 개인의 이름은 아기스였으나 가드의 왕호는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본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찬식 때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1. 찬송에로의 초대(1-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1절).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쫓겨 다니면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므로 주를 향한 성도의 찬양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곤고한 중에서도 쉬지 않는 찬송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곤고한 자들에게는 양약이 됩니다(2절). 기쁨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찬송은 성도가 함께 불러야 합니다. 시인이 입은 은혜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며 받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시므로 시인은 자기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합니다.

2. 곤고한 사람(4-7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4절).

다윗은 여호와께 구하자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어 모든 두려움에서 구해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끌어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움에 처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다윗은 곤고한 중에 처한 성도들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곤경에서 구해주실 것이므로 저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리라고 합니다(5절).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무기도, 심지어는 먹을 음식조차도 없었습니다. 놉으로 도망간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가드로 갔으나 아기스가 두려워 미친 척하다가 아둘람 동굴로 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 곤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사방을 바라보니 모두가 원수입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7절).

다윗은 기도한 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 했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 자신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여호와의 천사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3.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8절).

성찬식의 떡과 잔은 먹고 마시므로 맛을 아는 것이라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체험은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바로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가지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면 쓴물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과 사랑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를 가지므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15주년 특별행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각각 추수감사절 특별순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중등부 찬양대는 국악찬양을 준비하고, 고등부는 NLC(New Life in Christ) 찬양팀이, 대학부는 엘피스(소망) 찬양팀이, 청년부는 헵시바 중창단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19일(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오정수 장로, 지휘: 이영조 집사)에서 준비한 찬양곡으로 추수감사절 찬양예배를 드린다.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성하도록 기도한다.

태신자 초청 잔치

다음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 602호실에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06 사명자대회를 시작하여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를 해오던 태신자를 초청하여 천국잔치를 갖는 날이다.

이 날 초청된 태신자들은 전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시간 중 간단한 소개시간을 갖고 예배 후 602호 새가족부실에서 환영행사를 갖게 된다.

우리교회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

20일(월)부터 특별새벽기도회 시작돼

-사명자 대회 클라이맥스, 25일(토)까지 계속-

2006 사명자 대회의 클라이맥스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가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6일간 계속된다.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서는 더욱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된다.

불안한 국내 정세와,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주위에 가득한 환난과 고난의 소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라고 촉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육군 706 특공연대 진중 세례식

11월18일(토) 오후 2시-706 특공연대 새생명 교회에서

우리교회는 군복음화를 위해 2005년 군파송 선교사로 이경헌 목사를 파송한 바 있다.

이경헌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육군 706 특공연대 새 생명교회는 파송 1주년을 맞이하여 80명의 기간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선교의 결실을 맺고 진중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이번 진중세례식에는 수세예비 장병 80명, 일반장병 120명 등이 참석한다. 이들이 세례를 받아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며 군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린다.

우리교회에서는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진돈장로) 위원들과 이경헌 목사 증보 기도팀원들이 참석한다.

2007 대입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6일(목) 오전 8시 40분 501호에서

2007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1월16일(목)로 다가왔다. 우리교회는 수능시험 당일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대입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는 전체 5교시 수험시간에 맞추어 교역자들의 인도로 찬양, 말씀, 기도로 진행된다.

수능시간표와 담당교역자및 공동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교시	시험영역	담당교역자
1	언어	정수길 목사
2	수리	장석남 목사
3	외국어(영어)	서명철 목사
4	사회/과학/직업탐구	이태훈 목사
5	제2외국어/한문	윤영국 목사

<수험생을 위한 공동 기도제목>

1.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2.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 잘 생각나게 하시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3.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5.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성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렘 29:12)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Jeremiah 29:12 [NIV])

성지순례단 현지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 순례를 한 필그림 투어팀은 제6일째 되는 11월4일(토)에는 갈릴리 성만찬 촛불예배로 모였다.

다른 팀들도 합류하여 약 250명이 참석한 성만찬 촛불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는 고전 10:16-17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성만찬을 집례하였다.

다음날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올려드린 주일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받았던 2000년 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마 8:23-27 말씀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는 놀라움과 경외심 그리고 찬양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월요일부터는 사도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순례하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도의 땀과 피와 열정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리라는 마음을 품기도 하였다.

온갖 우상이 난무하였던 아덴과 방종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순례하면서 우리 비전 투어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례의 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감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번 순례 기간 중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순례를 평안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필그림 비전 투어팀>

만민에게 전도- 베드로 뵈뵈 전도회 농촌전도 보고

주님!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윤용미 집사(뵈뵈 여전도회)

전도 위원회, 베드로 남선교회, 뵈뵈 여전도회, 의료 선교회, 이미용 선교회가 협력하여 지난 10월 28일(토) 경북 안동에 위치한 방잠교회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이태훈 목사님과 하영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약 30여명이었으며 교회에서 출발하여 예상보다는 좀 늦은 시간에 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방잠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준비한 프로그램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여 도착 예배를 드리고 선교 영화를 상영하며 각 선교 팀의 준비 상황 완료!

이미 교회에 와 계시던 노인 분들 곁엔 일일 아들딸이 된 우리 교회 전도팀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용 선교팀의 세련되고 손 빠른 봉사와 의료 선교팀의 친절한 진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용한 아들딸들의 생명의 말씀 전달!

처음 농촌 전도에 참여한 저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만 하면 그 뿐이었습니다.

한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겠느냐고 생각했던 나는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늦은 도착까지도 계산해 놓으신 듯 시간과 물질이 남음도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나이는 70-80대이지만 20여명의 결신자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새 생명이 탄생되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방잠교회의 정봉기 목사님께서는 이미 다녀간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우리 전도대를 칭찬해 주셨지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간증을 나누고 소감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주일날, 오늘 결신한 분들 중 몇 분이 교회에 나오실까 하는 궁금증마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맡기고 우리 모두는 "주님!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전도학교를 마치며

전도의 불모지-비전의 개척지로...

위성남 집사(12교구)

지난 1기 때에도 교구 간사로서 전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유독 전도라는 것은 제 신앙생활의 불모지로서 언제나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전도지를 뿌리기는 했으나 복음제시 한번 자신있게 못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전도교육 첫째날, 장석남 목사님의 철저한 출석체크, 성경 24구절과 사영리의 암송, 매주 독후감 제출, 도곡렉슬아파트의 현장 전도 실습등이 저에게는 여전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에 전도 교육을 받은 후 훈련자 집사님과 전도현장에 나가 가가호호 벨을 누르며 축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자 집사님은 수첩에 빽빽히 적혀있는 가정들을 일일이 전도하며 그 과정을 세밀하게 메모하였고, 전도 이외의 다른 말들은 사사로이 하지 않았으며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기쁨으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하며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매주 독후감을 제출했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려는 삶의 결단을 말해주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성과 용기가 시간을 두고 가꾸고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말해주며 저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해준 놀라운 경건 서적이었습니다.

화요반 스탭과 훈련자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무장된 모습과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된 것도 감사 드립니다.

19기 화요 전도 학교를 마칠 즈음엔 시작할 때만 해도 크나큰 어려움이었던 '전도' 라는 불모지가 '교육과 훈련'으로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개척지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척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번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명자의 기도-수험생을 위한 기도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윤갑숙 권사(고등부 부감)

목성 화성
태양계 어느 가까운 별에서만 본다해도
이 땅덩이가 콩알만이나 할까?
그 속에 있는 나는
인류사 어느 페이지 귀퉁이에서
흔적인들 더듬어질까?
이 작은 내 모습
우주 어느 바닷가
모래알 부서진 먼지나 되랴
여호와가 혼을 불어 영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인 인 쳤으니
선다형 OCR카드의 대문짝만한 무게런들
하나님을 가리우랴
속삭임의 달콤함이, 숨 가쁜 책가방이,
말씀의 진리를 덮으랴
미물을 일으켜
천국백성으로 세워주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빛으로 가게 하소서

* * *

최차순 집사(고등부 부감)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한 땀방울의 결정체가 성장과 진보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아니한 요행이나 비열한 방법으로 과분한 점수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과에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난하여지고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들을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서있는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의 투구, 창과 방패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듣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수험생들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쓰임 받는 신실한 그릇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시민양성

서울성경대학을 마치며(Ⅱ)...

소선지서반을 마치고

조상희 성도(대학부)

성경대학 과정을 종강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공부를 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내 하나님! 이번 학기에는 또 어떤 부분으로서 깨우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다가간 시간이 소선지서반이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유로이 낼 수 있는 시간이 새벽뿐이기도 했지만,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성경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기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소선지서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첫날부터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의 모습에서 죄의 길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뜨거운 눈물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요엘과 아모스에서도 결국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런 사랑을 받는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요엘 2:13) 때에 따라 내 삶에 맞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반을 마치고

이준영 성도(3교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워 하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반을 지원하면서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불신자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이 사후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본 과정의 1장으로부터 시작, 특히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주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 큰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 하셨던 구원의 말씀을 통해 천년왕국, 새 하늘 새 땅에서 "다 이루었도다(It is done)"라고 하시는 승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든지 반가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마지막 구절(22장21절)을 눈감고 외워봅니다. "주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으로, 그 어렵다는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시며 많은 은혜와 깨우침을 주신 한상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대학부 성경 100독 마라톤

지금 대학부에서는 이색적인 마라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부 부흥원년' 선포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마라톤의 이름은 '성경 100독 마라톤'. 대학부원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마라톤에는 11월 현재 총 참석인원 서른여섯명, 총 통독 수 46독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46독을 마친 하 정 자매는 이번 성경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만이 아닌 말씀 자체로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성경읽기에 대해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기회'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경 100독 마라톤을 처음 제안한 서명철 목사님은 '이 마라톤에 참여하면 대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QT의 깊은 묵상에 도움이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파악과 이해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1년에 1인 1독을 목표로, 많은 대학부원들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큰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기 힘든 성경통독. 성경 100독 마라톤은 도전하기 힘든 성경통독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오주명(대학부)

2006년 가을시즌 화요 정오음악회

트럼펫과 튜바 ·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 11월14일 -

2006년 가을시즌 화요정오음악회 마지막 순서로 트럼펫과 튜바 ·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가 열린다.

트럼펫- 박상미, 튜바-박성진, 오르간- 이은주 선생이 연주한다. (관람석-본당3층)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6일(목) 장로교신학회 월례회를 소집하고 한국군선교연합회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 **주간 식당 봉사** : 스데반회(11월 12일) 권사회(11월19일)

■ **금주의 식사 · 떡 제공** : 필그림 성지 순례단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6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our(성지순례단) 통해 받은 은혜 다함께 누리도록
3. 선교사 파송 · 피택자 임직식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4.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